

[바 둑]

조한승 9단 '나도 스타'

마스터즈 결승, 허영호 꺾고 올 첫 우승

조한승 9단이 올해 처음으로 정상을 밟았다. 조 9단은 지난달 28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2006마스터즈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허영호 5단을 292수 끝에 백 반집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조한승 9단은 올해 첫 공식기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으며, 허 5단과의 역대 전적을 4승1패로 벌렸다. 조 9단은 LG배 세계기왕전 4강, 박카스배 천원전 결승에 올라있다. 마스터즈 대회는 프로기사들이 연구수당을 기금으로 납부해 창설된 기전으로, 개별 프로기사의 수당을 반납해 만들어진 대회다. 2005년부터 시작됐다. 2006 마스터즈 토너먼트 우승상금은 1천600만원(준우승 1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래도 나는 배가 고프다"

올 5관왕 이세돌, 이번엔 천원전 '정조준'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올 국내 최다관왕인 5관왕에 오른 이세돌 9단이 또 하나의 타이틀 사냥에 나선다. 이세돌 9단이 정조준하고 있는 대회는 조한승 9단과 무릎을 맞댄 박카스배 천원전.

최근 GS칼텍스배 우승을 차지한 이세돌 9단은 제2기 한국물가정보배, 제25기 KBS배독왕전, 제7기 맥심커피배, 도요타배, GS칼텍스배 등 5개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이세돌 9단이 천원전까지 접수할 경우 6관왕으로 이창호 9단을 밀찍이 따돌리고 입단 이래 가장 많은 타이틀을 보유하게 된다. 이창호는 국수전, 원익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왕위전 등 4개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9단이 올해 더 추가할 수 있는 타이틀이 없어 다관왕은 천원전 승패와 무관하게 이세돌 9단의 몫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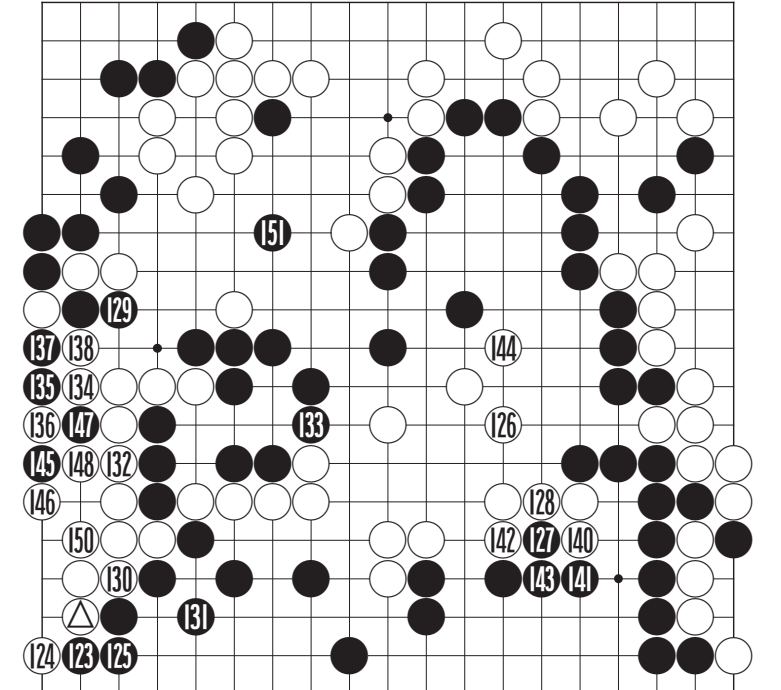
과격자세로 타이틀을 장악하고 있는 이 9단이 천원전까지 삼킬 경우 국내 프로기사 삼금 랭킹에서도 이창호 9단을 제치고 1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맞게된다. 5번기로 치러지는 이 대회에서 현재 두 기사는 1승 1패를 주고 받은 상황. 1국에서는 이 9단이 157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고, 제2국에서는 조 9단이 318수 끝에 흑 5집 반승을 거둬에 따라 승부는 원점.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제3국은 12월 6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강민 5단 이기분을 내서 백이 간 백이 사실은 흑에게 찬스를 준 수였다. 유병수 5단은 무심코 123으로 받고 아주고 말았는데 이 수가 손파라 둔 수로 패착이 되었다. 이 수로는 '참고도1'의 흑 1로 중앙 백 대마 공격에 승부를 걸어야 했다. 백 2로 받으면 9가지 대마가 살 길이 없으며 또 '참고도

손파라 둔 패착 7보(123~152)

白 이강민 5단 (PGA생명) 黑 유병수 5단 (포스코)



이강민 5단 이기분을 내서 백이 간 백이 사실은 흑에게 찬스를 준 수였다. 유병수 5단은 무심코 123으로 받고 아주고 말았는데 이 수가 손파라 둔 수로 패착이 되었다. 이 수로는 '참고도1'의 흑 1로 중앙 백 대마 공격에 승부를 걸어야 했다. 백 2로 받으면 9가지 대마가 살 길이 없으며 또 '참고도



박영훈 9단이 지난달 27일 부산농심호텔에서 열린 제8회 농심배 세계기왕전 최강전에서 중국의 천야오에 5단과 대국하고 있다. <한국기원 제공>

'소리없는 전쟁' 농심배 한·중·일 바둑 삼국지

박영훈, 한국바둑 구세주!

한국이 제8회 농심배 세계기왕전 최강전에서 영웅 탄생의 고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이 대회에서 빼어난 스트라이카의 연속행진으로 우승을 일구어온 독특한 징크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 한국은 지난 4회, 6회 대회에서 박영훈(4연승)과 이창호(5연승)의 고군분투로 중국과 일본 바둑을 평정하고 정상에 오른 경력이 있다.

한국이 농심배와 이같은 인연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대국 규정 때문. 농심사라면배는 한·중·일 3국에서 각각 5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단체전이다.

제1국 승자가 상대국 선수를 바꿔가며 질 때까지 경기를 치르는 '죽다 못하면 살아남는다'는 규정이 국가가 우승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한 선수의 활약만으로도 우승이 가능한 단체전이다. 이번 제8회 대회에서도 '영웅탄생'의 서막이 올랐다. 박영훈 9단이 지난달 27일 막을 내린 2라운드에서 3연승을 거둬서 비랑까지 몰린 한국 바둑을 구원했다.

그는 대회 연속 타이틀기록인 5연승을 질주한 중국의 링젠 7단을 제압한 것을 발판으로 일본의 다카오, 중

국의 천야오에를 잇따라 꺾는 독심을 발휘했다. 조현현, 최철한, 원성진이 줄줄이 고배를 든 최악의 상황에서 박 9단의 3연승은 석양을 바라보는 한국 바둑에 한줄기 서광이었다.

박 9단의 분전으로 농심배 잔류기사는 중국의 구리와 공제, 일본의 요다노리모토 등 3명으로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다. 한국은 박영훈·이창호 2명으로 적어도 수적인 열세에서는 벗어났다.

박 9단의 활약이 주목되는 것은 '단체전 체질'이기 때문. 지난 2000년 제4회 농심배 때는 선봉장으로 출전해 파죽의 4연승으로 한국우승을 견인했었다.

내년 2월6일 중국 상해에서 속개되는 3라운드에서 중국과 일본 잔류 선수들을 제압할 경우 박 9단은 농심배 최다연승 기록(5연승)을 경신, 우승을 차지하는 선수가 된다.

이창호 9단도 농심배에서 독보적인 활약으로 한국을 정상에 올려놓는 등 단체전에서 두드러진 활약으로 탑을 이끈 바 있는 베테랑이다.

한국이 단체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박영훈과 이창호를 앞세워 우승을 일궈낼 지 관심을 모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중 천야오예등 꺾고 3연승

'난파 직전' 한국팀 구해 내

내년 2월 베이징서 3라운드

중국의 천야오예를 잇따라 꺾는 독심을 발휘했다. 조현현, 최철한, 원성진이 줄줄이 고배를 든 최악의 상황에서 박 9단의 3연승은 석양을 바라보는 한국 바둑에 한줄기 서광이었다.

영화안내 (Movie Guide) section with 'Happy Time' and '영화안니'.

메가박스 (MegaBox) cinema listings for '그해 여름'.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listings for '해바라기'.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s for '사랑이 등장하는 것들'.

사랑이 등장하는 것들 (Love is Here) advertisement.

첨단월계공인중개사 (Advanced Moon-gye Gong-in Jeong-gae-sa) real estate ad.

금보부동산컨설팅 (Geonbo Real Estate Consulting) ad.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Ei-plus Gong-in Jeong-gae-sa) real estate ad.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Gong-in Jeong-gae-sa) real estate ad.

법원경매 (Court Auction) advertisement.

급매매 (Urgent Sale) real estate ad.

투자추천물건 (Investment Recommendation) real estate ad.

급매물 (Urgent Sale) real estate ad.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Gong-in Jeong-gae-sa) real estate ad.

법원경매 (Court Auction) advertisement.